

## 니부나 미즈사와 삼나무 희소개체군 보호림 - 기미마치 삼나무

이 18 헥타르의 보호림에는 약 3,000 그루의 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. 삼나무의 평균 수령은 250 년이고, 삼나무 중에는 높이가 50m 넘는 삼나무도 있습니다.

삼나무는 빨리 자라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중요한 목재 공급원 역할을 해왔습니다. 20 세기 중반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재건과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고도 경제 성장기에 목재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십억 그루의 삼나무가 심어졌습니다.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 삼나무는 비교적 최근에 식림된 것입니다. 그러나 **니부나 미즈사와 삼나무 희소개체군 보호림**은 천연 삼나무 숲의 대표적인 예이며, 이곳은 1947 년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이 숲에는 아키타현에서 가장 높은 삼나무인 ‘기미마치 삼나무’가 있습니다. 수령 250 년 된 이 거목은 높이가 58m 이고 둘레가 5m 가 넘으며, 이 나무 한 그루로 182m<sup>2</sup>의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가치는 수천만 엔이나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

또한 주위에 있는 무수한 나무들은 **니부나 미즈사와 삼나무 희소개체군 보호림**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원목(原木)입니다. 1962 년 높이 56m 의 ‘고이부미 삼나무’가 지역 벌목산업에 의해 우수한 어미 나무로 뽑혔습니다. 곤은줄기와 곤충에 강한 ‘고이부미 삼나무’의 증식을 기대한 삼림업자들은 이 나무의 종자를 채집했고, 상업용 목재로 벌목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심었습니다.

800m 의 순환 코스는 **니부나 미즈사와 삼나무 희소개체군 보호림**의 웅장한 나무들 사이를 지나갑니다. 비가 오면 나무길은 미끄러지기 쉬우며, 일부 판자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또한, 숲에 서식하는 곰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곰 방울을 휴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